

일본, 한국, 그리고 세계의 우려하는 시민은

우크라이나전쟁의 즉시 정전을 호소한다.

2022년 5월 9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2개월이 지났다. 러시아군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여, 병력을 수도 키예프 방면에서 철수하여 돈바스 동부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스탄불 정전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전의 조건이 제시되어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키예프 근교 마을 부차에서 시민의 시신들이 발견되자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우크라이나군은 분노로 가득 차 다시 새로운 전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국가들은 대형 무기와 신예 무기를 경쟁이라도 하듯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크라이나전쟁이 앞으로 수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푸틴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죽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래에 그만큼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뿐 만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원조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경우, 전쟁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확대되고 악화되어 유럽과 세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핵전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며, 제재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세계적 규모의 기아를 겪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을 한정하고 신속히 전투를 멈추게 하여 정전교섭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평화회복의 첩칙이다. 우리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상태에서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정전을 위한 진지한 회담에 나서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정전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은 정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3월 이후 터키가 정전회담의 중개자로서 보여준 노력은 경탄할 만 하다. 유럽의 전쟁이 결정적인 국면에 이른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연방 등의 중립적 대국,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전투 중지를 양쪽 군대에 호소하여 정전 교섭을 중개하는 데 참가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더 이상의 전쟁 계속은 용납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정전 의사를 세계 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정전회담을 마무리 지어 정전을 실현해 주기를 희망한다.

세계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과 능력에 따라, ‘즉시정전’의 목소리를 내어 행동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다. 우리는 호소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임을 당하지 말라.

2022년 5월 9일, 도쿄

고광현 전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사장, 시인

김세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전 국립외교원 원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명진 스님

박상규 목사 한신대학교이사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서해성 작가

심재명 (주)엠케이픽처스 대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이대근 우석대학교 교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도흙 동국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전 한신대학교 부총장

정지영 영화감독

정태춘 가수

한정숙 서울대학교 교수

함세웅 신부 사회운동가

홍세화 작가 사회운동가